

People & Life

빈민 의료봉사·교육·투옥... 일평생 헌신



'2011 광주인권상' 인도 비나약 센 씨

5·18기념재단은 2011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인도 인권운동가 비나약 센(61·Binayak Sen)씨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사인 그는 인도 인권단체를 이끌며 빈민 의료 봉사와 인권운동을 펼쳐왔다. 2006년 인도 낙살라이트 반군(토지 개혁을 농민 무장 단체)과 인도 정부군 분쟁 당시 소외된 부족을 위해 인권 교육을 시키는 등 인권 수호 운동을 펼쳤고, 이로 인해 2007년에는 특별보안법 위반으로 투옥 되기도 했다.

당시 국제사면위원회는 자국의 민주·인권운동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 비나약씨를 양심수로 선정했다. 4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그는 지난 18일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다.

그는 빈민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폴 해리스 어워드'(Paul Harrison award), 2007년 인도 사회과학원의 'R.R 케이트안 금메달'(R.R Keithan Gold medal)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비나약 씨의 수상으로 국가 폭력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채 탄압받는 수많은 인권 운동가들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민중의 물결이 파도치는 중에도 인권과 평화의 결실이 넘쳐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비나약씨는 "인도는 빈곤이나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 자체가 지켜지지 않으니 민주주의에 대해

시민들의 신중을 요구가 없다. 인권도 마찬가지"라며 "1980년 5월 광주 민중들의 용기와 정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처음 제정된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로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가족협회'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오후 5시 광주 서구 삼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미화 5만달러와 금장 메달, 상장이 수여된다.

2000년 제정된 광주인권상은 5·18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공헌한 국내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며, 역대 수상자는 사사나 구스마오 전 동티모르 대통령(2002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찌 여사(2004년) 등이 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일고-전남대 사범대 양해각서



김병채(오른쪽) 광주일고등학교장과 이종백 전남대 사범대학장이 지난 19일 자율형 공립고 교육협력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주일고 제공>

광주음식업회 '음식 사랑' 봉사단 출범



(사)한국 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김효대)는 21일 광주 서구 삼무리초등학교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음식과 사랑' 봉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

조선대-전북테크노파크 MOU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기술지주주식회사(단장 겸 대표이사·이행남)가 20일 전북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심성근)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조선대 제공>

여성과학지원센터 '과학캠프'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센터장 이영숙)는 최근 호남에너지기후변화센터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과학캠프'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제공>

지원동 우체국 고객에 봄꽃 서비스



광주 지원동 우체국(국장 심호순)은 최근 우체국 인파에 철쭉 등 봄꽃을 전시해 고객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지구촌 기후재난 고통 함께 나뉘요”

'지구의 날' 기념 마련 전시회 환경운동연합 박미경씨

“기후 재해로 고통받는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을 되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20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롯데갤러리에서 만난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48) 사무처장은 '에코 아트 페어'의 미술작품들을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20일부터 27일까지 롯데갤러리 광주점과 함께 기후재난 기념 마련을 위한 '에코 아트 페어'를 개최하고 있다.

에코 아트페어(Eco Art Fair)란 환경을 뜻하는 '에코'에 여러 작가가 한 곳에 모여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행사인 '아트페어'가 만나 지구촌 기후재난민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미술시장을 의미한다. 이번 작품 판매로 조성된 기후보호기금(판매금의 40%)은 광주 지역 기후보호운동과 기후 재해로 고통받는 방글라데시 환경단체(환경변호사협회·BELA)와의 협력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 사무처장이 에코 아트페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상기온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기후 난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글라데

시 연안지역은 사이클론이나 폭풍우가 빈번해 매년 수만명의 이재민이 나오고 있지만, 집·음식·마실물·의료 서비스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박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도 지난해 겨울 엄청난 한파로 전기가 부족할 정도였다”며 “우리도 언제 기후 난민이 될 지 모른다”고 기후 난민을 도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황영성, 우재길, 장찬홍, 오경규, 송필용, 박태후, 박백 등 81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사진,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85점이 출품됐다.

사무처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행사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의 062-514-2470(광주환경운동연합), 062-221-1807(롯데갤러리 광주점)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윤복희 “남진 이용하려고 결혼했다” 고백

가수 윤복희(65)가 지난 20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서 두 번째 결혼 상대였던 남진에 대해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했다”며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1967년 '부모'를 부른 가수 유주용과 첫 번째 결혼을 한 윤복희는 결혼 생활 4년 만에 파경을 이르고 남진과 재혼했지만 역시 이혼했다. 윤복희는 이날 방송에서 남진과의 결혼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유주용에게 실망해 찾기에 저지른 일이라고 털어놓았다. 당시 한 신문에는 남진이 유주용이었던 윤복희를 향해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기사가 대서특필됐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재혼하게 됐다는 것.

그는 “최초로 고백하는데 내가 나쁜 여자였다. 내게 (사랑을) 고백한 사람의 순진성을 이용했다. (남진 씨의 기사가 난) 신문을 보고 스크랩에 신경 쓰는 우리 남편에게 실망해 남편이라고 그랬다. (남진 씨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내 큰 잘못이라는 깨닫고 (두 번



재 결혼) 6개월 후에 '미안하다.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고 반지를 돌려주고 집도 주고 나왔다. 새벽 4시에 통행금지 풀리자마자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분(남진)은 날 사랑하고 참 귀하게 여기고 잘해줬다”며 “헤어진 후 나온 폭행설이나 그분이 날 내쫓았다는 등의 루머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윤복희는 또 한간에 알려진 '1967년 미니스커트 입국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한참 후(1996년)에 한 백화점이 나처럼 생긴 모델에게 미니스커트를 입혀 광고를 한 게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만큼 생활 4년 만인 1967년 1월 새벽 2시에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는데 너무 추워서 털코트에 바지를 입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주영 '6월의 신랑'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에서 뛰는 박주영(26)이 '캠퍼스 컵'로 지냈던 정모(27)씨와 6월 중순 백년가약을 맺을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박주영의 한 측근은 “결혼 상대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1년 연상의 대학 선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K리그 FC서울에 입단한 박주영은 그해 4월 프로 데뷔골을 터뜨리고 나서 유니폼 상의를 풀어 올려 속옷에 그려진 하트 모양과 굽벤이 모양의 애벌레 그림을 보여주는 '굽벤이 세리머니'를 펼쳤다. 박지성의 뒤를 이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은 박주영은 애초 작년 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올해 1월 치러진 아시안컵 일정과 프랑스 정규리그 일정을 고려해 6월 중순으로 결혼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국용씨 '2011년 경영자대상'



김국용 우리로광통신(주) & ㈜무등 대표이사(전남대 전 총동창회장)가 오는 23일 전남대 경영대학에서 열린 대한경영학회(학회장 박성수 전남대 교수) 춘계학술대회에서 '2011년 경영자대상'을 수상한다.

김국용 대표이사는 열수축성투브 전문업체인 ㈜무등을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조우량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우리로광통신은 2015년 매출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출신 이화경씨 '제비꽃서민소셜상'



광주 출신 소설가 이화경(47)씨가 한국저축은행과 한국사자은행이 주관하는 제12회 제비꽃서민소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소설 '꿈-이 야기 하나로 세상을 희롱한 조선의 책 읽어주는 남자'.

이 상은 저축은행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07년 처음 제정한 문학상으로, 전회 수상작가가 소설을 통해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작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상자가 선정된다. 상금은 1000만원이다.

전남대 오늘 '세계한상포럼'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단장 임재현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광주시·제이동포신문과 공동으로 22일 오후 3시 전남대 사화관에서 '제6차 세계한상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초청 연사는 송창근(사진) 인도네시아 KMK 그룹 회장으로, 1988년 단돈 300불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는 신발제조와 판매로 연간 1억 80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일궈낸 인물이다.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최혁(보성건설 상무이사)·석유화학장 은석(IG전자 디자인연구소 주임연구원)군 박동규(순창군청)·김주희씨 장녀 진하(조선대 미술대 강사)양=23일(토) 오전 11시 50분 롯데대인 광주 호텔 2층(라벤더홀)

▲양은옥씨 차남 정성민(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군 조역현(광주은행 부행장)씨 장녀 인영(기업은행)양=24일(일) 오후 2시 신양파크호텔 1층 대연회장.

동창·동문회

▲2011년 장성남중 동문회 창립 한마음 축제(회장 심민섭)=23일(토) 오전 9시 30분 장성남중학교

운동장. 011-644-0187.

종친회

▲수원백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백형로) 정기총회=22일(금) 오전 11시 상록회관 3층 011-634-8728.

▲의성김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김근남) 정기총회=24일(일) 오전 11시 금호회관(전일빌딩 뒤) 010-3114-5584.

▲경주최씨 호남종친회(회장 최관수) 정기총회=24일(일) 오전 11시 대성직업전문학교 5층 대강당(북구 동림동) 062-362-944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모집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생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광주 두암 태권도 체육관 여성 요가부=요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 모집. 관장 박성택. 010-3636-1758.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립니다=북구 우산동 덕성이빌관. 062-524-0680.

▲어린이 건강교실(기관지 천식, 비만, 아토피, 어린이 질병)=매일 오후 4시~6시. 봉선동 연아빌딩 1층 1층. 062-651-1175~6.

▲'마늘 죽염 건강요법' 주민건강

교실=매일 둘째주 금요일 저녁 7시. 남구 봉선동 연아빌딩 1층·인산죽염광주지사. 062-651-1175~6.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아름다운경매 동호회=기초부터 학습, 물권, 채권, 권리분석,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동분석, 현장답사 직장인 스터디를 통한 체계적교육. 011-607-4614.

▲시라의 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여)교사 및 학생=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급검정고시반(월·화), 한문, 기초영어반 모집. 교육시간 월~금 오전9시~12시30분, 오후 2시~4시. 062-951-5397, 011-9456-6037.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광주시내 아파트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모집. 062-236-0032.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모집. 011-617-7713.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전통문화예호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초·중·고 졸업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근처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임준근씨 별세 병관·병덕·병진·병수·정례·순의·순덕씨 부친상 =발인 22일(금) 무등장제식장 102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故 김재연 님(남/82세) 子/子婦: 김영남 / 임영숙 영교 / 최복순 영림 / 김영진 영숙 / 조은애 영순 / 백관일 영숙 女/婿: 김영숙 / 이종길 영림 / 이종진 영숙 *호실: 201호 *발인: 4월 22일 *장지: 영암 시종 선영 *연락처: 227-4381	故 유석순 님(여/87세) 子/子婦: 서용남 / 정미연 윤미 / 이영희 영교 / 이영숙 영숙 女/婿: 서용남 / 조영림 윤미 / 서재경 윤민 / 황태로 윤민 / 박성훈 윤희 / 조영숙 윤숙 *호실: 301호 *발인: 4월 22일 *장지: 담양 고사 선영 *연락처: 227-4382
故 정경자 님(여/73세) 子/子婦: 조인호 / 최지현 인영 / 최희숙 인영 女/婿: 조인정 / 김재순 인영 / 최희숙 인영 *호실: 101호 *발인: 4월 22일 *장지: 화순 남면 선영 *연락처: 227-4385	故 임기철 님(남/69세) 子/子婦: 임정식 / 정미연 현식 / 박진희 현숙 女/婿: 임정식 / 정미연 현식 / 박진희 현숙 *호실: 402호 *발인: 4월 22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5

마음까지 편한 **孝 金호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故 박순이 님(여/88세) 子/子婦: 최홍일 김점숙 현일/김민숙 현숙/최정애 최정자/신광삼 정남/정현숙 현숙/김태성 추자/박필기 박필기 *발인: 4월 22일 9시 00분 *장지: 영암 군서 *연락처: 250-4407	故 송정진 님(남/82세) 未亡人: 안수교 子/子婦: 송태원/정미경/안주/박은이 女/婿: 추민우/이영식, 정숙/김근남, 정만/이영호 *발인: 4월 22일 08시 00분 *장지: 영암군 대덕면 *연락처: 250-4409
---------------------------------------------------------------------------------------------------------------------------------------	-------------------------------------------------------------------------------------------------------------------------------------------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